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사진 가운데)이 최문순 MBC 사장에게 항의하며 공식사과 및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고 있다.

MBC보도국 “잘못 인정·정정보도하겠다”

‘문화재 보수비’ 사용 관련 보도에 조계종·문화재청 등 반박

MBC가 월정사 및 도피안사 관련 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를 약속했다. MBC는 2월 20일과 21일 ‘MBC 뉴스데스크’ ‘뉴스 24’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석탑(월정사) 및 불상(도피안사) 보수에 대해 지원된 예산이 수행자와 스님들의 속소를 고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형일 MBC 보도국 사건팀장은 2월 23일 조계종 항의방문단과의 실무회의에서 “뉴스투데이 오전 방송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자가 직접 출연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항의방문단이 밝혔다. 정형일 팀장은 또 “뉴스데스크, 뉴스 24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쉽지 않는데, 먼저 담당기자의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연락 주겠다”고 덧붙였다.

확인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MBC 사장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항의방문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문화부장 탁연, 월정사 재무국장 범상, 신홍사 포교국장 정목 스님 등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제보를 근거로 취재를 해 오보가 난 것은 불교 쪽이기는 시각이 팽배하며, 이러한 오보는 불교를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집단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항의방문단은 MBC의 공식사과 및 정정보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취재과정상의 비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월정사, 사단법인 보리, 문화재청은 ‘석탑과 불상을 고지라고 지원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MBC의 주장에 대해 “월정사에 석탑 보수비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원래 서별당의 보수 및 복원 용도로 15억원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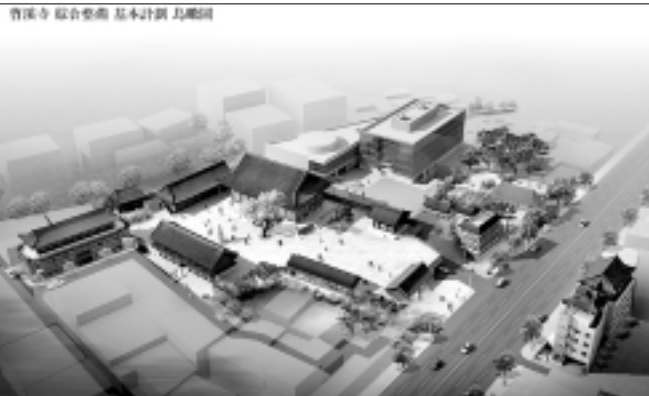
원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도피안사에도 원래 불상 보수비 5000만원과 무של전 개축비 7억 1500만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불상보수비로 지원된 것이 무של전 개축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중심도량 조·계·사

시민선원·문화사업관·영산전 건립 4월부터 법당 개방, 신도체계 개편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올해 시민선원과 문화사업관, 영산전을 잇따라 건립하며 한국불교 중심도량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조계사가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선원은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을 대중화할 수 있는 수행체험공간과 내·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총 33억원이 투입될 시민선원은 수송빌딩과 안심당을 해체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지면적은 241평이며, 건축면적은 603평. 조계사측은 조

만간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통과한 뒤 올 10월 이전 준공할 방침이다. 인사동-조계사-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의 틀을 구체화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사업관은 대지면적 175평, 건축면적 800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40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산전은 대웅전 삼존불 조성으로 기존 목조 석가모니 부처님 및 후불탱화를 모실 전각 및 신형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된



조계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조감도.

다. 대지면적 263평, 건축면적 20평에 맞배지붕 정면3칸 측면2칸으로 조성된다. 총 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내 준공할 계획이다. 조계사는 또 종합장례문화사업을 실시해 신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계사측은 장례 문제를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포교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사는 이 외에도 4월 보름부터 3년 동안 24시간 법당을 개방해 새벽이나 밤늦게 근무하는 사 람들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올 가을 경 신도회도 통

폐합하고 신도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문화, 사회봉사, 해외포교 등 분야별 실행활동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조계사는 2010년 조계사 전신인 각광사 창건 100주년을 맞아,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조계사 사지 발간 작업을 우선 완료하고 역사 문화자료를 디지털화 할 계획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한국 불교 총본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역화 불사와 함께 실행문화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정각선원에 신증행차

3월 5일 점안법회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인인 국회 정각회(회장 이해봉)와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허태수)는 3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정각선원에서 신증행차 점안 법회를 봉행한다. 정각선원에 모셔질 신증행차는 지난해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계기로 국회 정각회와 직원불교신도회가 조성한 것으로, 점안 법회에는 영주 부처사 조실 근일 스님이 증명법사로 참석한다. 여수형 기자

불국사 종회의원 종상·종광 스님

선관위, 무투표 당선 확정

경주 불국사 중앙종회의원에 종상 스님(前 불국사 주지)과 종광 스님(경주 기림사 주지)이 당선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도공)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172차 회의를 열고, 14대 중앙종회의원 재선거 11교구(불국사 교구)에 입후보한 종상 스님과 종

광 스님의 자격심사를 한 뒤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종상 스님은 1965년 사미계, 7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연주암·정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68년 사미계, 71년 구족계를 수지한 종광 스님은 11·12·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회의에서 중앙선관위 간사에 덕산 스님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해자 스님 종정 표창, ‘108산사...’ 공로

서울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이 새로운 실행문화를 개척한 공로로 2월 22일 조계종 종정 표창을 받았다(사진). 해자 스님은 ‘선묵해자 스님과 함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끌며 능촌살리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표창을 수여하며 “108산사 순례기도회로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한 것은 물론 참배하는 사찰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등 총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에 해자 스님은 “승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아 부끄럽다”며 “사찰을 방문할 때 인근 군법당도 방문하고 108 경지킴이 발대식을 하는 등 군포교와 환경보호에 중점을 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108 순례단은 2월 28일과 3월 3일 두차례에 걸쳐 논산 관촉사와 논산훈련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재철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에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동방대학원대·금강대 첫 졸업식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와 천태종립 금강대가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각종립 위덕대도 2월 22일 지혜관에서 총 740여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2월 23일 강당에서 제1회 학위수여전례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학위수여자는 서화예술학과 신영숙씨 등 석사과정

10명과 불교문화학과 이성룡씨 등 연구과정 8명 포함 총 18명이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2005년 3개 학과로 문을 연 이후 현재 6개 학과에 150명이 재학하고 있다. 금강대도 2월 26일 강당에서 첫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교육’이라는 교육방식을 슬로건으로 2003년



개교했다. 금강대는 입학정원 총원율에 구애받지 않고 수능 1~2등급 이내의 기본 소양 자격조건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 엘리트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원우 기자

도암 스님 2주기 추모제 3월 5일 서울 흥도사에서

도암 스님 문도회(회장 서호·사진)는 3월 5일 서울 흥도사에서 대승종 전 종정 도암당(道庵堂) 성도(性道) 대종사 2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2005년 2월 25일 입적에 든 도암 스님은 1920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

어나 35년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38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사미계, 39년 개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8년 대한불교 대승종을 창종, 초대종정에 취임했다. (02)2234-2198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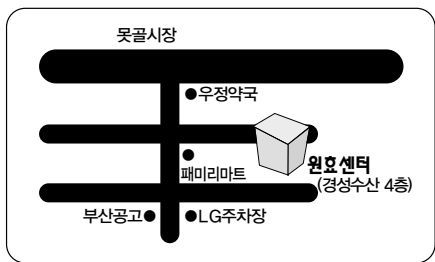
부산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 곳, 가장 품격있게 대승의 경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곳, 가장 심도있게 종파불교와 여타종교를 비교분석하는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에서는 1300년 전 원효대사의 저술 102부 302권 가운데 불세출의 명작이라고 평판받는 대승기신론 해동소·별기의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이 짓고 신라의 원효대사가 심혈을 기울여 풀이한 이 독보적 논서는 대승불교를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체계화하여 소승불교의 독선과 경원을 안락하게 잠재워 버린 인류최고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아래의 장엄한 법회에서 원효가 남긴 이 금과옥조 같은 불멸의 유산을 물려받아 삼계의 노숙자가 우주의 제왕이 되는 성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大乘起信論

海東疏·別記
 5期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4期회원 현재 수강중 -

- 개 강 : 2007년 3월 15일(목) 오후 8시
- 장 소 :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 기 간 : 1년
- 법 회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입학비 : 10만원
- 월회비 : 10만원
- 법 사 : 공파스님
 합천 해인사에서 삼장 수학.
 S.E.A.T대학원(RP)에서 유대신학 수학.
 4년간 남방비구생활.
 국제승려.
- 저 서 : 부처님의 유언
 천수경의 원본경전
 극락세계 1.2.3
 원효전집 6권
 The Vajra Sutra(영판)
 바이로차나 그 외 다수
- ※ 3월 15일(목) 오후 8시에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전화 051)611-3808,1924 e-mail: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Gongpaam

III E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시 남구 대연1동 1753-16 대연동 못골시장 육교 밑 우정약국 못골목 경성수산 4층